

“亞 설화·신화킬러콘텐츠 개발 역점”

광주문화재단, 새해 사업 계획
국제 학술 컨퍼런스·공연작 준비
시민문화관 미팅룸으로 꾸며 개방
정책·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추진도

‘아시아설화·신화킬러콘텐츠 개발’, ‘아트광주 파빌리온’, ‘청춘문화누리터’, ‘찾아가는 문화공연’, ‘글빛마루정원’...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는 광주문화재단(대표 이사 노희용)은 협업과 개방을 키워드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노희용 대표 이사 취임과 함께 의미있는 변화를 일구어 가고 있다.

재단은 올해 아시아설화·신화킬러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는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설화·신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진행함과 동시에 향후 공연 무대에 올릴 작품의 시나리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 사업(2024-2027)을 위해 재단은 지난해까지 광주전남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설화나 민속자료 전수조사를 끝마쳤다.

정책·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발족한 ‘문화예술 정책거버넌스’는 올해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포럼 개최 및 시·현용 예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업 공동기획을 비롯해 시 정책제안 등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실행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정부·의회·중앙기관 참여 모델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을 전시장과 미팅룸으로 새롭게 꾸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글빛마루정원’



스트리트 댄스·디제잉·힙합 등이 어우러진 지난해 ‘청춘문화누리터’ 행사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으로 조성해 독서와 토론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를 견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춘문화누리터’에서는 디제잉, 힙합, 스트리트댄스 등 대중문화 예술이 펼쳐진다. 문화향유 지원도 주요 사업이다. 올해는 9만 7000여 명에게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며 문화장터 ‘누리랑’ 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새롭게 추진한다. 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야외공연 50팀이 매주 토요일 시민을 만나며 목요일공연과 토요일공연은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장르를 무대에 올린다. 전통문화관

으로 조성해 독서와 토론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를 견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춘문화누리터’에서는 디제잉, 힙합, 스트리트댄스 등 대중문화 예술이 펼쳐진다. 문화향유 지원도 주요 사업이다. 올해는 9만 7000여 명에게 연간 14만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며 문화장터 ‘누리랑’ 운영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새롭게 추진한다. 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야외공연 50팀이 매주 토요일 시민을 만나며 목요일공연과 토요일공연은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장르를 무대에 올린다. 전통문화관



박진연의 문화카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예술로의 여정이다. 여기 저기서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깜짝 등장해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주인공’은 영종도 휴게소에 자리하고 있는 ‘포춘베어’(Fortune Bear·장세일 작)다. 길이 9m, 폭 9, 7m, 높이 23.57m의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설치작품은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해 2018년 개장한 제2터미널은 ‘모두를 위한 예술’이 실현된 거대한 미술관이다.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예술과 만나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프랑스 작가 자비에 베이앙의 ‘그레이트 모빌’, 강희라의 ‘헬로

감동과 새 희망을 담은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다양한 장르의 90여 점이 전시돼 화제를 모았다. ‘동구와 함께 즐기는 기쁨’이라는 뜻을 지닌 이번 전시는 동구미술은행의 컬렉션을 1개월에서부터 1년동안 소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다. 지난해 2021년부터 동구가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매년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홍보하기 위한 쇼케이스 성격이 짙다. 동구가 그동안 구입한 컬렉션은 총 170여 점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신청자에 한해 소정의 대여료(2000원~2만원)만 내면 작가들의 작품을 자신의 안방이나 거실, 사무실 등에 걸 수

‘일상 속 예술’ 동구미술은행

(Hello), 오순미의 ‘Dreaming Space’ 등 16점을 곳곳에 장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콜라보는 ‘아트 포트’(Art Port)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과 MOU를 체결한 공항은 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Art Bank)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대여해 여객터미널의 귀빈실에서부터 공항 로비 등 곳곳에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화려한 컬렉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호응이 크다. 지난해 13일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무등갤러리에서는 매우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미로센터가 주관한 ‘2025 동구 미술은행소장품전-동구동락’(東區同樂·3-15일)이다. 올해 새해를 맞아 예술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지만 미술품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일정 기간 작가들의 작품을 자신의 일상에서 마음껏 감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보자들은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애호가들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동구동락이 통했을까. 전시장을 가득 메운 90여점 가운데 한희원 작가의 ‘큰 나무 아래’ 등 30여점(12일 기준)이 드디어 ‘주인’을 만났다. 미술은행이 시행된지 올해로 4년째이지만 희망자가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미술은행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컬렉션의 ‘존재’를 알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행정의 디테일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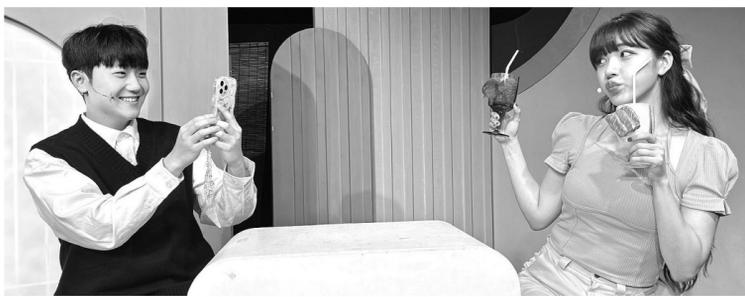
SNS 허상 깨고 ‘진정한 나’ 발견 뮤지컬 ‘인사이드 미’ 9일~2월23일 기분좋은극장

‘올해의 인물루어선상’을 받은 복자는 SNS 속에서 ‘인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허황된 삶을 누린다. 슈퍼스타 산티의 신곡을 작곡한 남자 친구 진혁은 그녀의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며 힘들어한다. 하루하루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잘 모르고 있던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데..

(주)플레이백토리가 뮤지컬 ‘인사이드 미’를 9일부터 2월 23일까지 광주 기분좋은극장에서 펼친다(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6시, 일요일 오후 4시).

작품은 시골에서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란 주인공 인별과 SNS를 싫어하는 남자친구 진혁의 갈등을 다뤘다. 현대인이 겪을 법한 비극을 조목조목 SNS 증독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별 역은 추더, 아리, 윤채린, 별은 배우 등이 맡으며 진혁 역에 박기찬, 문성욱, 김민재 등이 출연한다. 이외 슈퍼스타 산티, 커피숍 사장, ‘어마존 크루’를 비롯해 복자의 친구 ‘순덕’, ‘요가마스터’, ‘복



‘인사이드 미’ 공연 장면. <기분좋은극장 제공>

자 할머니’ 등 20세부터 82세를 넘나드는 ‘멀티 배역’은 이현정·류성아·김민희·장민욱 등이 연기한다. 이번 뮤지컬은 EBS ‘3대 번개맨’(2016-2021)으로 알려진 서홍석이 극작 및 작사, 연출을 맡으면서 주목받는다. 서 씨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팔로워의 니

즈에 맞춰 본인을 포장하면서 실제와 다른 ‘나’를 만들어내곤 한다”며 “거짓된 이야기에 빠져든 일부 사람들에게 내면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무등급 5만 원, 설 연휴 공연 없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향토문화’ 43집 나왔다

후세대에게 전달해 줄 만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이라 한다. 오늘날 문화유산은 보존과 전승을 넘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재한다. 지역과 연관된 문화유산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와 콘텐츠를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향토문화개발협의회(회장 김종일)의 기관지 ‘향토문화’(제43집)가 나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김연수 이사의 ‘향토문화원형 IP 킬러콘텐츠 제작’ 등 글이 실렸다. 또한 이영문·강진표·최성훈의 ‘호남 고인돌 출토유물과 부장품’, 황호균의 ‘일제강점기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 현지 조사와 이전사’, 노성태의 ‘면양정 송순의 관직과 회방연에 대한 일고찰’, 김희태·김병문의 ‘장흥 반계사 소장 필사본 ‘진법(陳法)’ 해제’, 김희태의 ‘반곡 정경달선생 관련 조사 연구 현황’, 이수경의 ‘통제사영과 진경문의 통제진 검토’, 심홍섭·성대철·김희태의 ‘화산 국조전 조사 보고’, 조

광현의 ‘영암 해주 최씨 송남가 자료 소개와 주요 특징’의 논문이 수록됐다. 부록으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정관, 주요활동, 회원 명단이 실렸다. 한편 김종일 회장은 “향토문화는 그 지역의 ‘선비’들로 하여금 문헌의 기록으로 남겨져, 그 시대의 사회상을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로 전하여 주며 앞으로의 미래를 연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옳고 바른 이야기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옛 문헌을 정리하고 보존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